

연구모임 정책건의 보고서

연구모임명	미세먼지안전부산시민행동		
연구기간	2020. 5. 25 ~ 2020. 11. 24		
대표자 소속	부산환경운동연합	대표자 성명	민은주
참여자 성명	민은주, 전구슬, 노주형, 이윤미, 홍하나		

□ 연구모임 구성 배경 및 목적

(1) 구성 배경

- 작년 2019년도에 미세먼지안전부산시민행동 5인은 부산녹색환경지원센터의 지역참여형 사업으로 인해 정기회의 및 ‘미라클 대 강좌(미세먼지 바로 줄이기 연속 강좌)라는 대중적인 교육 활동을 진행한 바 있음. 이 사업을 통해 부산시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시민 홍보 및 저감 정책 마련을 위한 강좌 및 토크쇼, 원탁회의, 현장방문 활동이 대중적인 홍보 및 시민들의 참여를 바탕으로 부산에서는 최초로 진행 됨. 이를 통해 부산시민들이 미세먼지에 대해 “바로 알고 행동” 하는 홍보 및 교육이 되었고 부산시의 정책개선에 기여하였음. 특히 부산일보 및 국제신문, 부산 KBS 등 지역 언론들의 호응에 힘입어 부산시민들에게 미세먼지 심각성을 알리고 시민들의 실천을 이끌어 내는 등 여론 형성에 크게 기여한 바 있음.
- 미세먼지의 심각성과 부산지역의 시민환경단체의 기자회견 등으로 8대 법안의 제·개정이 이루어지는 등 제도는 마련되고 있으나 관계기관(환경부 및 해수부)는 여전히 선언적인 활동에 그치고 있으며 실행체계는 제대로 마련되지 않고 있는 상황임.
- 2030년까지 부산의 미세먼지(PM2.5) 저감 목표는 30%(780톤)로 시민공감대 형성 및 실행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부산시민 전체가 힘을 모아야 할 때임.

(2) 연구모임의 목표

- 부산시 초미세먼지(PM2.5) 780톤 저감목표를 시민들과 함께 달성
- 올해 시행되는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부산광역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등 미세먼지 관련 법안 및 조례 시행 관계기관과의 간담회와 토론회를 통해 현황 점검
- 부산지역 미세먼지의 주요 오염원인 항만 및 사업장 배출원을 모니터링 함으로써 근본적인 해결방안 제시

- 연구모임 주된 운영은 정기모임과 워크숍을 통한 활동 계획, 모니터링 활동을 통한 현황 점검, 미세먼지 총량·규제방안 토론회를 진행했음.
- 코로나 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계획했던 선박모니터링은 부산해양수산청 간담회로 대체됨. 연구모임의 진행 결과는 아래와 같음.

<연구 모임 진행 결과>

연구모임	날짜
1차 워크숍	6월 17일
2차 워크숍	7월 15일
1차 모니터링	7월 29일
2차 모니터링	8월 19일
하반기 계획회의	9월 16일
미세먼지 총량·규제방안 토론회	10월 20일
결과보고회 보고회의	11월 20일
모니터링 활동 워크숍	11월 21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간담회	11월 25일

□ 연구모임 운영 요약

(1) 모니터링 워크숍 : 6/17, 7/15

- 6월 17일 충남 당진의 미세먼지 저감활동 경험과 교훈(당진환경운동연합 유종준)이라는 주제로 1차 워크숍 진행
- 7월 15일 부산의 미세먼지 사업장 모니터링(학장천살리기주민모임 강미애)이라는 주제로 2차 워크숍 진행

(2) 사업장 모니터링 : 7/29, 8/19

- 7월 29일 사하구 1차 사업장 모니터링을 시행함. 날씨의 영향으로 굴뚝 연기를 관찰할 수 없었음.
- 8월 19일 사하구 2차 사업장 모니터링을 시행함. 부산패션칼라산업의 무연탄보일러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함.

(3) 하반기 계획회의 : 9/16

- 사업장 미세먼지 총량 규제 관련 토론회,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간담회에 대한 논의

(4) 사업장 미세먼지 총량 규제 관련 토론회 : 10/20

- 사업장 미세먼지 총량 규제 관련 토론회에 옥현주 모니터링 단장 토론 참여
- 정장표 교수의 발표 결과에 따르면 사하구청 담당자가 토론회에 참가했다면 좋겠다는 의견을 밝힘. 시민들의 미세먼지에 대한 안전을 위해 시, 사업장, 시민단체의 노력을 촉구함.

(5) 결과보고회 보고회의 : 11/20

- 결과보고회 관련 보고 및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간담회 최종 날짜 결정함.

(6) 모니터링단 활동 워크숍 : 11/21

· 모니터링단 활동 보고 : 부산패션칼라산업 석탄보일러 1인 시위 진행, 사하·장림공단 모니터링단 자체 모니터링, 미세먼지 총량·규제방안 토론회 참여, 조경태 의원 간담회 등

(7)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간담회 : 11/25

·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담당자의 브리핑

: 항만대기질(선박) 개선 업무 현황

: IMO 2020을 바탕으로 해양환경관리법 및 항만대기질법에 의거한 황함유량 규제 관련 점검현황을 브리핑

: 2020 1.1~ 10.30 기준으로 연료유 분석 126회(휴대용 연료유 분석기 95회, 시험연구기관 분석 의뢰 31회)을 시행함

· 부산항만공사 담당자의 브리핑

: 부산항 그린포트 구축을 위한 세부 추진 과제

: 선박, 하역장비, 그린에너지 도입 등과 같은 부산항만공사의 사업 현황에 대한 브리핑

· IMO 2020, 해양환경관리법 및 항만대기질법과 관련한 내용은 상세히 알고 있었지만 감사원보고서 「미세먼지 관리대책 추진실태」의 권고사항(내항선 용도로 수입되는 노후 선박, 육상전원공급설비(AMP) 확대 설치계획 불합리)에 대한 내용 숙지는 제대로 되어있지 않았음.

· 2020 1.1~ 10.30 기준으로 연료유 분석 횟수(126회)가 많은 검사 수치는 아니라는 지적

·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과의 소통 문제 지적(간담회, 선박 모니터링 등)

□ 연구모임 정책 제안

(1) 연구모임 활동의 기대효과

· 부산지역 미세먼지의 주요 오염원인 항만 및 사업장 배출원을 모니터링 함으로써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인지함.

· 부산시민 대상 모니터링단을 구성하여 직접 현장을 점검하여 심각성을 공감하고 미세먼지 저감 실천을 통한 지속가능한 삶의 질 패러다임으로 전환

=> 코로나 19로 인해 선박모니터링의 어려움을 겪음.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간담회를 통해 내년에는 선박 관련 담당자와 선박모니터링을 진행하는 것으로 함.

(2) 연구모임 활동의 성과 활용방안

· 미세먼지 특별법 및 현 상황을 토론회를 통해 논의하여 점검하고 정책 개선안을 제안하고 더 나아가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여 상시적 소통을 할 수 있도록 제안

· 상시 미세먼지 모니터링단 운영 및 미세먼지 저감 기업 협약

=> 내년 모니터링단 운영 계획에 대해서 더 많은 고민을 해야 함.

· 연구모임 결과보고회의 평가 의견은 아래와 같음.

연구모임명	평가의견
미세먼지안전부산시민행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세먼지 관련 현장 및 전문가 회의 등을 개최하였으며, - 현장 방문의 목적에 부합하고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산·관 연계 전문가 토론회 개최 - 미세먼지에 관한 자료 확보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산시 미세먼지 발생의 주요 기원인 선박에 대한 실제적인 모니터링의 필요한 것으로 생각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순 육안이나 기업체 자료에 의존한 모니터링은 효율적이지 못함 - 부산지역은 항만지역 미세먼지가 가장 큰 원인이나 항만에 대한 모니터링 실적이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례 및 자료 비교 확인 필요

· 코로나19로 인한 제약 때문에 선박 모니터링 부분에 대한 것은 아쉬운 부분임.

· 2019년에는 미세먼지에 관한 교육, 2020년에는 모니터링 및 정책 담당자와의 토론회를 진행하였음. 이후에 미세먼지 정책을 제대로 요구할 수 있도록 데이터, 모니터링 일지, 체계적인 모니터링 활동을 준비할 필요성이 있음.

· 부산시 초미세먼지(PM2.5) 780톤 저감목표를 시민들과 함께 달성하기 위해서는 부산시 차원이 아니라 시민, 부산시, 부산항만공사(BPA), 중앙정부(해양수산부)의 민관 거버넌스가 필요함.

· 사업장 미세먼지 총량 규제 관련 토론회에서 정장표 교수의 지적사항에 대한 것은 부산시 차원의 대책이 필요함.

(정장표 교수의 지적사항)

1. 대기정책지원시스템(CAPSS)의 미세먼지 배출량 자료는 4~5종 사업장의 미세먼지 배출량을 과소 추계하고 있음을 지적함.
2. 이에 부산 강서구, 사하구 뿐만 아니라 사상구에도 미세먼지 비중이 높을 가능성이 높음
3. 연구에 따르면 서구 및 사하구를 제외한 최대 배출원은 도장시설로 밝혀짐(비중 25~100%).